



서울팩2012, 10월 23일 개막 350개사 2000부스로 국내 최대 포장전

2012 서울국제포장전(서울팩2012)이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1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주최하고, 이엔씨커뮤니케이션스가 주관하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생산기술연구원포장기술센터, 한국포장협회, 한국포장기술사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공업포장협회,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및 포장관련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서울팩2012는 10월 23일 오전 11시 개막식 테이프커팅을 시작으로 전시장 순회, 개막기념 오찬, 한국생산기술연구원포장기술센터가 주최하는 아시아포장연맹(APF) 총회 등으로 첫날 행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한국공업포장협회가 주최하는 한중일 3국간 공업포장기술교류회 서울대회, 참가 기업 기술세미나, 제13회 포장기계인의 날 기념식 및 제12회 포장기계대상 시상식 등이 열리며, 25일과 26일에도 다양한 기술세미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4만2180㎡ 전시공간서 신기술 경쟁

킨텍스 1관 2홀에서 5홀까지 4만2180㎡ 공간에서 열리는 서울팩2012는 포장재료, 포장용기, 포장기계, 포장제가공기계, 식품제약, 화장품 생산기계, 식품가공기계, 포장용 인쇄기계, 물류장비 및 물류시스템, 포장디자인, 포장관련특허제

품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선보인다.

한국포장기계협회의 회장사인 (주)리팩을 비롯해 (주)흥아기연, (주)세종파마텍, (주)카운텍, (주)백천기계, (주)을성정공 등 국내의 대표적인 포장기계 기업들이 최신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완전 자동화를 통해 인력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풀 라인 제품과 자동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로봇을 이용한 설비들도 대거 선보인다. 효원기계(주), (주)교토코리아, (주)우도산기, (주)디씨팩, (주)로픽 등에서는 로봇을 적용한 최신의 포장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국크리에타, (주)김포비엔에스, (주)아남자동기, (주)영테크팩, (주)선진에스엠에서도 최근 개발한 신제품을 통해 효율적인 최적의 포장라인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안기계(주)에서는 최신 그라비아 인쇄기를, 두산전자기기는 포장재 가공 설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영문 모바일 웹페이지로 실시간 정보 제공

서울팩2012 사무국에서는 참가업체 및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모바일 웹페이지(<http://m.seoulpack.org>)에는 서울팩2012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전시회 참가 안내, 전시회 사전 등록 등이 서비스된다. 참가업체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되는 전시회 레이아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웹페이지와 기존 전시회 웹페이지(www.seoulpack.org)를 연동해 모바일뿐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참가업체의 정보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국문과 영문 페이지로 작성해 해외에서도 전시회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이벤트·해외 바이어 숙박 및 관광 지원

서울팩2012에서는 공연 및 이벤트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매일 음악, 춤 등 한류 공연이 전시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며, 행운의 경품 추첨, 참가업체 퀴즈 풀기 등 별도의 이벤트도 펼쳐진다. 넓은 전시공간을 고려해 관람객의 휴게공간도 전시장 곳곳에 배치된다.

해외 바이어에게 숙박 지원은 물론, 전시장에서 멀지 않은 DMZ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의 기회도 제공된다.

서울팩2012 관계자는 “서울팩2012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포장 전문 전시회로 국내 포장산업의 규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보다 앞선 포장, 최신 포장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포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필요한 모든 것을 전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팩2012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포장기술, 포장제품, 포

장기계를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마켓이다”고 말했다.

27조원 시장 규모·연평균 16.5%의 높은 성장률

우리나라 포장산업 시장규모는 현재 약 27조원에 이르며 소프트웨어(20조원), 바이오(15조원)산업보다 규모가 큰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포장산업 관련 기업은 약 1만3000개 정도로, 전형적인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사자수는 약 13만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동안 포장산업은 제조업의 보조 역할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들어 바이오, 나노 등 신기술과 유통 등 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 단순 포장 역할에서 탈피, 상품의 가치를 창출,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식품, 생활용품, 의약, 화장품, 전자 등 각종 수요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자동차(33%), 섬유(35%)보다 높은 46%에 달하며 포장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1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매우 유망하다.

세계 포장산업 시장은 주요 수요산업인 식품·음료산업과 제약, 화장품,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3.5% 성장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시장규모가 59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장산업의 시장지배력은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으로 양분되는 가운데, 빅 5(미, 일, 독, 영, 불)가 세계시장의 약 50%를 과점하고 있으나, 그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 등의 후발 개도국들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추세다. ↻

문의 : 전시사무국 TEL.032-576-2012 홈페이지 : www.seoulpack.org



국내 최대 포장전시회인 서울국제포장전은 10월23일 킨텍스 1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서울팩 2010년 모습